

•배포일시: 2025.05.23. 배포즉시  
•전화: 권지웅(청년주거희망위원회 위원장) 010-5255-6422  
•이메일: gom22@naver.com  
•쪽수: 총 2 쪽

## ‘진짜 대한민국’은 “전세사기 걱정없는 사회”! 민주당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출범회의 개최

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‘청년주거희망위원회’(이하 ‘위원회’)가 25일(일) 출범한다. 이날 출범회의에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해 윤여준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 및 김남근, 장경태 의원 등 선대위 주요인사가 참석한다.

전세사기는 대표적인 청년 이슈다. 청년 세대의 80%가 임차인이며, 전세사기 피해자 중 70% 이상이 2030세대였다. 청년주거희망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‘전세사기 걱정없는 사회’를 포함해 청년 주거안정화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. 전세사기 피해자, 청년들과 함께 전세사기 대책을 약속해온 유일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 지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.

\* 2025년 5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현황(누적) 기준, 20대 피해자(25.8%), 30대 피해자(49.2%)로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(75.0%)가 절대 다수

위원장에는 권지웅 前 민주당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이 임명되었다. 권 위원장은 청년주거운동 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, 경기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장으로 역할해 온 청년주거전문가다. 위원회는 권 위원장을 포함해 청년, 전세사기 피해자, 주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.

이번 위원회 출범은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. 이 후보는 당대표 당시에도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,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방문,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제정 등 전세사기 문

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역할해 왔다. ‘전세사기 걱정없는 사회’ 등 청년 주거안정화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 담기기도 했다.

청년주거희망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이고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의 피해가 큰 만큼,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‘보증금 지키는 이재명 대통령’ 캠페인, ‘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투표 독려 캠페인’을 진행할 예정이다. 그 과정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

첨부. <청년주거희망위원회 출범회의 행사개요> 끝.

## 행사개요

○ 일시 및 장소 : 2025. 5. 25일 (일) 오전 10시 / 용산빌딩 2층

○ 참석 : 윤여준 총괄상임선대위원장, 권지웅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위원장, 맹성규, 김남근, 장경태 국회의원 및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 15명 총 30여명

(사회: 미정)

| 시간    |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:00 | 2분  | 개회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자                      |
| 10:02 | 3분  | 참석자 소개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자                      |
| 10:05 | 15분 | 축사 및 인사말                    | 선대위 관계자, 청년주거희망위원회 관계자 등 |
| 10:20 | 10분 |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, 전월세 거주자 발언     | 부위원장, 당사자                |
| 10:30 | 3분  |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출범 퍼포먼스 및 단체사진 촬영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:33 | 2분  | 정리 및 폐회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